

### 섬김에 대한 나의 생각 < 교육관 공사 사진을 보고... >

안녕하세요? 지면으로 다른 분들께 인사를 드리려니 쑥스러워서 익명을 선택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당당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관 공사를 했던 사진만 인터넷 교회 웹사이트에서 보았는데, 웬지 미안해서 아직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 교회 주보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광고가 난 것을 보기는 했지만 제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웬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아직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섬김)은 아무나 못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서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다른 분들 사이에 불쑥 끼는 것이 더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가 날 때 다른 교회 일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교육관을 공사한다는 것은 워낙 큰 일이라 기억에 남아있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해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 나중에 웹사이트를 보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사도 깔끔하고 색도 좋았습니다. 다시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제가 그 틈에 끼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 생각에는 대학촌 교회가 아무나 끼어들어 봉사(섬김)를 하기 불편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반갑게 해 주고 어색하지 않도록 말도 걸어주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평소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목사님께서 교육관 공사에 대해 쓰신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유학시절에 교회 공사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 그 교회가 자신의 교회처럼 귀하게 느껴졌다는 내용이었고 참 공감에 갔습니다. 내 손이 가야 내 물

건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봉사(섬김)의 목적에 대해 제대로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그래도 적게 다닌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누가 봉사(섬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성경적인 답을 잘 모릅니다. 믿음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도 관심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학촌 교회 분위기가 저처럼 불쑥 나서지 못하는 성격인 사람에게도 '한번 교회 일에 나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하고 싶어도 직접 나서기 쑥스러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바쁘지만 어떤 일들에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 없는 마음이 반반입니다. 저는 대학촌 교회가 강요하지 않는 점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끔 목사님이나 목자께서 기도하시면서 맞는 일을 찾아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권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한다'입니다. 저도 사실 안하는 쪽이지만, 첫 발을 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적당한 때 부담스럽지 않은 일을 하나씩 하게 되면 어느새 봉사(섬김)가 몸에도 익고 신앙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게 처음에는 일도 적당히 나눠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칼럼에 쓰신 것처럼 '내 교회'라는 느낌이 들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관 공사에 수고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참 감사하게 생각하며, 공사는 못 도왔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 오신 분들도 앞으로 사용하는데 더 주의해 주시고 자녀들도 깨끗이 쓰도록 가르치신다면 그것도 돕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은혜로운 글은 아니지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L: 익명의 대학촌 교회 교우)



JULY, 2010

유타대학촌교회 외지복간 제 65호 10-(3)

발행일: 2010년 6월 27일 일요일 / 발행인: 김열중 목사 / 편집인: 황수진, 송강

### :: 목차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1)  
- 반소영 자매 -

God, Youth Camp & Me (3)  
- Joseph G Kim -

섬김에 대한 나의 생각: 교육관 공사 사진을 보고... (4)

###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보다 더 많이 섬기시는 분들, 인터뷰 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인터뷰를 청하는 기자에게 반소영 자매(청년부)는 손사래를 먼저 쳤다. 설득 아닌 설득 끝에 어렵게 말머리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 계속 '저보다 더 많이,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며 쑥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섬기는 이의 참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반소영 자매는 현재 U of U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청년부 조 리더로 섬기면서 동시에 서기를 맡았다가(전년도) 올해는 회계로 뽑혔기에 청년부 내에서의 직분은 두 개. 그리고 주일 2부 예배에서는 Power point를 맡고 있다.

소영 자매는 한국에서 학교 졸업 후 대한항공에서 일하다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 미국에 온 경우. 일과 유학 사이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다 이끌림이 있어 어렵게 미국행을 결정했다. 새벽기도를 다니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던 부모님도 '아무래도 너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결정에 힘을 보태셨다고. 어머니 친구의 딸(김자영 자매)의 소개로 자매는 2008년 10월 미국에 온 첫 주부터 대학촌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 일을 맡기로 결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소영 자매는 어김없이 '저보다 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이야기를 했

다. 그리고는 "청년부 임원의 경우, 선거 당시 목사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며 해야겠다

고 맘먹었어요. 청년부 리더에 대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과연 리더를 해도 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말을 못 잇고 또 쑥스러워하는 소영 자매. 자매는 모태신앙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섬김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 무게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뜬금없이 전에 소그룹 리더를 해본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아, 저는 대학교 때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갑자기 자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반항심이랄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가고 그런 것도 안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때 잃어버린 시



반소영 자매

구분	예배	시간	구분	예배	시간
주	1부 예배	09:50 AM	주	세벽예배	월-금 06:00 AM 토 07:00 AM
	2부 예배	11:00 AM		수요예배	수 07:00 PM
말	Youth	09:30 AM	중	금요 안양예배	금 07:00 PM
	Youth Q.T 모임	매달 마지막 토요일		청년부예배	금 08:20 PM
	주일학교	11:00 AM		목자윤련	1/3 주 토 08:30 AM
	계개윤련	토 09:30 AM 토 11:00 AM		청년부 리더모임	월 08:00 PM

**Soul Lake와 함께 아실 분들을 찾습니다**  
ucccutah@hotmail.com

기자, 사진기자, 작가, 편집부 등 모든 분야에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문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및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ucccutah@hotmail.com이나 목사님, 선교부장님, 황수진 자매, 송강 형제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국 대학촌가족의 근황을 남겨주세요  
ucccutah.org

대학촌교회의 홈페이지 근황게시판 신설

본 유타 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는 유타 대학촌교회 홈페이지(http://www.ucccutah.org)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 아깝더라고요. 학생들이 저하고 4,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교사를 하게 됐죠. 청년부 소그룹 리더는 그 후에 한 적이 있어요."

섬기다 힘들 때가 있었냐는 질문을 한번 해 보았다. 성실해보이는 인상 탓에 "없을 것 같지만..." 하는 기자의 말에 소영 자매가 웃는다. "왜요. 언젠가 power point 만들었던 걸 몽땅 다 날려버리고 나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던데요. Final이나 Mid-Term 시험기간에도 그렇고.... 그럴 땐 버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바빠서 버거운 게 아니고, 제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눈다는 게 버거워요." 누구나 그렇듯이 섬길수록 더 절실한 매일의 말씀묵상과 꾸준한 기도. 자매는 "사실 그렇게 꾸준히 잘 못할 때도 있어요."라며 말을 이었다. "제 경우는 금요 찬양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배 후에 리더모임이 있기도 하구요. 사실 금요 찬양 예배에도 power point 담당 사람이 필요해서 제의를 받긴 했는데 그건 어렵겠다고 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깊이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아한 인상만큼이나 신앙생활도 내내 그렇게 반듯하게 했을 것 같은 자매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 안에서 컸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면 끼리끼리 모여 다닌다고 하나?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구요. 가서 뒤에서 자다 오기도 하고...(웃음)" "대학교에 갓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수능을 많이 망쳐서 원하는 대학엘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정을 못 붙인 채로 그냥 다니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권해서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청년부도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 목사님께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청년부에서 중국으로 단기선교를 가는데 중국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시작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중국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소영 자매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눈물 콧물 다 쏟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 "선교 대상은... 지하교회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단순히 전하고 온다기보다는 서로 친해지며 말씀과 삶을 교감하자라는 그런 거였죠. 거기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의심만 하는 도마에게 늦었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직접 못자국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시고..." 자매는 몇

번이나 '직접' 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느꼈다. 내몽고 깊숙한 곳, 화장실이 마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곳에 가서는 마음 놓고 야뻐, 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하는 지하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그 후로 중국 단기선교를 4번 더 갔어요. 중국선교... 또 가고 싶어요."

전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으며, 앞으로의 섬김을 위해 기도하는 자매. 섬김 이전에 간증이 있었고 받은 은혜가 있었다. 섬긴다는 것은 이 은혜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 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먼저 '직접'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전 15:10) (SL: 황수진 기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페니 저금통 선교**  
매달 마지막 주, 저금통을 교제해주세요!  
1달러면 북한 아이들 한명의 일주일분의 식사가 되고, 아이 3명의 결핵예방 접종 비용이 되기도 하며, 아이 한 명의 일주일 교육비가 됩니다. UCCC

**대학준교회헌법 제 10차 개정**  
정기총회에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성도님들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기총회 때에 귀중한 안 표를 부탁드립니다.

# God, Youth Camp & Me

- Joseph Gwangmo Kim

## Hello, UCCC!

This is Gwangmo, a week or so back from Camp Red Cliffe. There's so much that I took with me from camp, by God's grace. As always, I was able to get to meet and draw closer to folks that I wouldn't otherwise have had the opportunity to. I'm terribly grateful for God's blessings in the relationships that I've been able to make and cultivate there. It was an honor to go to camp with such people, including our UCCC youth. I really mean that! They had so much energy and laughter (though sometimes too much for me to handle) that I couldn't help but smile alongside them and love them.

This year, I'll be able to physically take something with me from camp: the shield you'll see me wearing around my neck. It's a gift from Ken, the praise leader for the week. When he gave me it, he told me, "You're a treasure", to which I could only awkwardly smile and mumble a thank you.

Thing is, we all need to hear something like that every once in a while. I really believe God encouraged me through OI' Ken at a moment

when I was feeling tired and tired of trying so hard to show some of the love God has lavished on me. God treasures us, and I knew it, but somehow along the way, while I was straining to reflect that, I forgot to feel the naturally flowing love God was and is trying to show me at every waking moment. I struggled to show love on my own, but His love---He's just a natural when it comes to love, you know? It shows in His promises: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That's the verse on the back of my shield.

My biggest mistake during that precious week was my failure to constantly cling on to God's strong love that goes with me wherever, and whomever I lead. Thank God, He gently reminded me to trust in Him to lead so even seemingly impossibly good things can happen. Or not. The time may not be right for crazy life changes to happen. He reminded me of that, too. But the main thing is to have faith in the promise that God is with you, to the very end of the age.

I encourage everyone to step into leadership if they're ready to grow in faith. Dare to trust in God to fight for you, with the assurance that He has gone before you and has your back, too. (SL)



2010 UCCC YOUTH SUMMER CAMP의 사진들은 대학준교회 홈페이지(ucccutah.org)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